

# 미방위 與野 의원들 “원전 고장·비리·도덕적 해이” 집중포화

국정감사 나흘째

한빛원전 물품 반출입 관리 허술 질타

“동양그룹, 정권측근 인사 영입해 로비”

국회는 17일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해외 공관에 나선 외교통일위원회 등 모두 13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나흘째 국정감사를 벌였다.

여야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기초연금 수급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안전행정위와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기획재정위 등은 한때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미방위의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잇따른 원전고장과 비리사태의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이날 “지난 2008년 이후 한수원 직원들이 원전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횟수는 2008~2011년에는 10건 미만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 65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모두 118회에 달했다”며 “한수원 직원 중 45명이 해임됐으며 4명이 직위해제, 13명이 정직, 23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명박정부가 원전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업계의 폐쇄적인 인맥 등 유착관계가 심해지면서 2012년 비리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감시를 강화해 비리가 발불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한수원은 2004년 이후 일본 히타치·도시바·미쓰비시와 9건의 계약을 맺어 699억 2700만원의 원자력발전소용 부품을 들여왔는데 최근 마이너치 신문은 해당업체들의 부품 1조3000억원 상당의 물량 중 40% 이상에 대해 안전확인 절차가 생략됐다는 보도를 해, 한국에 들어온 부품 중 상당수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빛원전의 물품 반출입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빛원전 2호기 제20차 계획예방정비기간(2013.2.1.~4.22.) 증기발생기 수실 보수 공사를 위해 반입한 물품이 1만 3039건으로 기록됐지만 반출된 물품은 6578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49.6%인 6천461건은 소재 파악이 불가능했다. 유 의원은 “지난 4월 고리 4호기에서 작업자가 실수로 두고 나온 자석 때문에 이상 신호가 발생돼 큰 사고로 이어질뻔 했는데 여전히 발전소에서 물품 반출입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한수원은 지난 6월 원전비리사태 때에도 통렬히 반성한다고 하더니, 범인카드 사용 규정 위반에 계속 적발되는 등 자정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도덕적 해이가 바닥에 깔려있다”고 꼬집었다.

## 수입쌀 ‘호텔생활’·우리쌀 ‘노숙신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감…민주 김영록 의원 주장

수입미는 저온저장창고·나라미는 일반창고에 보관

수입쌀은 저온저장고에 보관되는 반면, 나라미는 일반창고에 보관되는 등 오히려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17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대한 국감감사에서 매년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수입쌀 전량은 온도가 자동 조절되는 전국 18개소 저온저장창고에서 무동역으로 보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학교급식, 군급식 및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나라미는 전국 3807개 일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소득층 사회복지용 나라미에 대해 바구미·씰벌레 등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오염돼 불만이 높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나라미는 군납 5만 9000톤, 학교급식 3만톤, 사회복지용 9만톤 등 약 16만톤이 공공용도로 활용됐다. 또 양곡창고에서 바구미, 쌀벌레 등 병해충을 방제하는 시동하는 훈증처리농약은 국내에 마지막으로 남은 있는 고독성 농약으로 WHO에서 사용규제를 권고하는 고독성 농약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수입쌀은 호텔생활, 군·학교급식용 나라미는 노숙하는 꼴”이라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그러나 이 가운데 유료 관람객은 2008년 29만명(81.8%), 2010년 29만 명(60%), 2012년 19만명(30%)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무료 관람객은 2008년 6만 4000명, 2010년 19만명, 2012년 45만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디자인비엔날레는 학생 관람객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2007년 전체 관람객의 35.5%인 8만명, 2009년 44.1%인 5만9000명, 2011년 49.1%인 9만7000명을 기록했다.

나 의원은 “매년 50억원이라는 철세를 투입하는 국제 행사인 디자인비엔날레가 학생을 동원해 관객을 채우는 지역 행사로 전락했다는 일부의 비난이 있고, 학생들의 호주머니까지 이용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실정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전시회, 박람회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가 개최되면서 관람객이 분산되는 실정”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신설한 마케팅팀을 적극 활용해 실현성 있는 유료 관람객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본지기자 jkpark@kwangju.co.kr

## 국민행복기금

- 김종우



따로 한 번 해야 할 것 같다

/본지기자 cki@kwangju.co.kr

## 역사왜곡 교과서 퇴출을 위한 광주시민대책위원회 결단식 및 서명운동 선포식

일시 : 2013. 10. 17(목) 11 : 00 장소 :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 역사왜곡 교과서 퇴출 광주시민대책위 출범

광주시교육청·민족문화연구소 광주지부·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지역 71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역사왜곡 교과서 퇴출을 위한 광주시민대책위원회’가 17일 공식 출범했다. 대책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이를 청와대·국회·교육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날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현재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강도 높은 추궁을 했다. 현 회장은 “엎드려 사죄드린 다”면서 공식 사과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금융당국이 규제 하점, 불완전판매 방지, 주채무계열 관리 소홀 등으로 동양사태 확산을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동양그룹 계열사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양을 비롯한 동양시멘트, 동양증권 등 9개 계열사가 지금까지 정권의 측근이나 감독기관 출신 고위 인사들을 입원과 사외이사, 고문 등으로 집중 영입해와 확인된 영입 인사만 41명에 달한다”며 “이들이 로비 통로로 이용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1 3 7 9 1397

**채무는 줄여 주고**

**국민행복기금으로 다시 웃으세요!**

**희망은 더해 주고**

[www.happyfund.or.kr](http://www.happyfund.or.kr)

**채무는 확 줄이고 행복은 쭉 올리고**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신청자격 :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출자(2013. 2. 28 기준)

- 접수기간 : 2013. 5. 2 ~ 10. 31 (6개월 한시 접수)

- 접수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및 목포·여수사무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전국 농협은행, KB국민은행 지점

###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 신청자격 : 연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대출자

- 접수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및 목포·여수사무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개 시중은행 지점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행복기금** 을 쳐보세요 ■ 문의 : 서민금융다모아 1397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